

존 매케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미 상원의원 기자회견

방한 중인 미국 존 매케인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8월 26일(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미국 국민들이 정전 후 짧은 시간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에 미국이 역사적으로 일조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함께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동맹관계로 성장했다고 역설하며 미국은 초당적 의지를 갖고 확장억지 제공과 같은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 수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진심 없는 정치적 수사에 대한 보상을 반대하고 지속적인 압박과 실질적 행동을 전제로 한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 의원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이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이 전 세계가 본 받아야 하는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지역 안보를 지켜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지난 60년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두 의원은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당사자들 간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의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국과 베트남이 우방국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공동의 정치·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삼국은 북핵문제와 함께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움직임에 대해 매케인 의원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헌법을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국제법과 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 재해석을 통해서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테러 및 인명구조와 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60년 정전협정의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체제 민주화 그리고 인권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예산자동삭감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미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역 안보 불균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